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 · 지역별 분석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
shlee@kiep.go.kr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장
jhjung@kiep.go.kr

김홍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이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leehn@kiep.go.kr

최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jwchoi@kiep.go.kr

김주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joohye@kiep.go.kr

최재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jhchoi@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국경제는 제조업 기반의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세 둔화와 함께 성장동력과 경제구조 등이 변화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
 - 중국경제는 2015년 이후 성장률이 6%대로 하락하면서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했던 고속성장에서 벗어나 성장률 6~7% 수준의 중속성장으로 전환
 - 중국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0년 이후 요소투입 위주의 외연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효율과 혁신 위주의 집약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
 -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최근 중국경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중국의 성장둔화와 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야 하는 상황

- 시진핑 정부는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신창타이(新常态)로 규정하고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공급관리정책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에 집중
 - 중국은 최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내수와 고용 촉진이 강조되면서 산업정책 역시 서비스업 육성과 서비스무역 진흥을 강조
 - 중국은 서비스업 발전 촉진을 위해 13·5 계획 기간(2016~20년) 동안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업 육성정책을 시행할 계획
 -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 확대·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에는 서비스무역의 발전 촉진을 위해 서비스무역혁신시범구, 자유무역시험구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

-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1년 4,471억 달러에서 2016년 6,571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중국 상무부)
 - 2011~16년 중국의 상품무역은 연평균 0.1% 증가하는 데 그친 데 반해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8.0% 성장하였으며,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을 합한 총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9%에서 2016년 15.1%로 증가
 - 중국은 서비스업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 과정에서 서비스수입이 더욱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 연속 적자를 기록

-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도 변화된 대내외 경제환경에 맞춰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세계 수출구조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
 - OECD 국가들의 경우 총수출 중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에 달하고, 총수출 증가에 대한 서비스수출의 기여율이 59.8%를 기록(2014년)하는 등 서비스업이 수출확대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
 - 반면에 한국은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로 OECD 국가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총수출 증가에 대한 서비스수출의 기여율도 대체로 상품수출을 하회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역시 상품에 편중된 구조이나 최근 중국의 제조업 성장과 수출이 둔화되면서 2014년(-0.4%)과 2015년(-5.6%)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경험
- 본 연구는 우리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이를 활용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에 기여하고자 함.
 -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의 서비스시장 확대라는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국 경제협력의 확대 및 심화에 기여
 - 중국의 수출둔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동력과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3.6% 성장하면서 2016년 6,571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미국(1조 2,145억 달러)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표 1 참고)
 -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서비스무역 증가율(5.8%)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서비스무역의 빠른 성장은 서비스수입의 급속한 확대에 기인
 - 서비스수입이 수출을 크게 상회하면서 중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5~16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연평균 41.4% 증가하면서 -53억 달러에서 -2,425억 달러로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
 - 서비스무역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2005~16년 총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에서 15.1%로 상승
 - 중국의 서비스수입 상위 3개국은 미국(10.2%), 독일(7.4%), 한국(5.1%) 순(2014년)

표 1. 중국의 서비스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중국							세계	
	서비스무역	총무역 대비 서비스 비중			총수출 대비	총수입 대비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	
		수출	수입	서비스수지					
2005	1,613	780	833	-53	10.2	9.3	11.2	25,972	25,284
2006	1,938	935	1,003	-68	9.9	8.8	11.3	29,316	28,311
2007	2,532	1,249	1,283	-34	10.4	9.3	11.8	35,104	33,553
2008	3,002	1,447	1,555	-108	10.5	9.2	12.1	39,482	38,106
2009	2,668	1,216	1,451	-235	10.8	9.2	12.6	35,210	33,766
2010	3,696	1,773	1,923	-150	11.1	10.1	12.1	38,471	36,993
2011	4,471	2,003	2,468	-465	10.9	9.5	12.4	43,280	41,577
2012	4,808	2,006	2,803	-797	11.1	8.9	13.4	44,513	43,219
2013	5,352	2,058	3,294	-1,236	11.4	8.5	14.5	47,431	45,866
2014	6,489	2,181	4,308	-2,127	13.1	8.5	18.0	50,781	49,392
2015	6,498	2,165	4,333	-2,168	14.1	8.7	20.5	47,897	46,424
2016	6,571	2,073	4,498	-2,425	15.1	9.0	22.1	48,077	46,941
연평균 증가율	13.6	9.3	16.6	41.4	-	-	-	5.8	5.8

주: 총무역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합, 총수출은 상품수출과 서비스수출의 합, 총수입은 상품수입과 서비스수입의 합을 의미함.
 자료: WTO DB(<http://stat.wto.org/Home/MSDBHome.aspx?Language=E>, 검색일: 2017. 10. 2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세계투입산출표(WIOT)에 의하면 중국의 서비스수입 시장규모는 2014년 2,799억 달러에 달하며, 세부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서비스업(25.3%), 도소매 서비스업(19.1%),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9.0%), 정보통신 서비스업(5.5%)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 2000~14년 중국의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대한민국 교역은 2000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대한민국 총수입의 규모가 총수출의 규모를 압도하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총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적자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표 2 참고)
 - 중국의 대한민국 서비스수출과 서비스수입은 2000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서비스수출의 연평균 증가율(14.7%)이 총수출 증가율(17.8%)보다 낮았던 반면에 서비스수입의 연평균 증가율(22.5%)은 총수입 증가율(16.8%)을 크게 상회
 -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의 대한민국 서비스수지는 2003년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규모는 2006년에 대폭 줄어든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빠르게 확대
 -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수지 흑자는 주로 여행, 운송, 지식재산권 사용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서비스수지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임. 반면에 대중국 서비스무역에서 가공서비스수지와 기타사업서비스수지는 꾸준한 적자를 기록

표 2. 중국의 대한국 총무역 및 서비스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총무역			서비스무역					
	총수출	총수입	총수지	수출	수입		수지	비중	
					비중	비중			
2000	10,333	19,168	-8,835	719	7.0	837	4.4	-118	1.3
2001	10,086	19,457	-9,371	641	6.4	684	3.5	-43	0.5
2002	14,792	24,348	-9,556	808	5.5	755	3.1	53	-0.6
2003	19,409	36,353	-16,944	1,058	5.4	1,085	3.0	-27	0.2
2004	27,254	54,130	-26,876	1,452	5.3	1,764	3.3	-312	1.2
2005	34,363	63,440	-29,077	2,481	7.2	3,215	5.1	-735	2.5
2006	43,614	71,419	-27,806	2,912	6.7	3,134	4.4	-223	0.8
2007	54,301	83,159	-28,857	4,699	8.7	5,088	6.1	-389	1.3
2008	71,134	102,202	-31,068	4,289	6.0	4,940	4.8	-651	2.1
2009	50,926	96,507	-45,581	2,823	5.5	3,666	3.8	-844	1.9
2010	67,707	122,583	-54,876	3,918	5.8	4,938	4.0	-1,020	1.9
2011	94,857	153,192	-58,335	4,151	4.4	5,963	3.9	-1,811	3.1
2012	92,056	153,881	-61,825	4,421	4.8	8,619	5.6	-4,198	6.8
2013	99,543	163,019	-63,477	4,515	4.5	10,899	6.7	-6,385	10.1
2014	101,924	168,773	-66,849	4,897	4.8	14,259	8.4	-9,362	14.0
연평균 증가율	17.8	16.8	15.6	14.7	-	22.5	-	36.7	-

주: 총무역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합, 총수출은 상품수출과 서비스수출의 합, 총수입은 상품수입과 서비스수입의 합을 의미함.
 자료: WTO DB(<http://stat.wto.org/Home/WSDBHome.aspx?Language=E>, 검색일: 2017. 10. 2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한국이 중국의 서비스수입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계산한 결과 한국은 도소매업과 부동산서비스업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 업종은 2000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비교우위가 2014년에 더욱 강화된 것이 특징

- 반면에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에 비교우위를 확보하였으나 2014년에는 비교열위로 전환
- 그 밖에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는 한국이 비교열위에 놓여 있어 중국의 서비스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국면

2)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서비스업 개방정책

- 중국정부는 2015년 이후 서비스무역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서비스무역 고도화, 시범지역 육성 등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
 - 2015년 「서비스무역 발전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은 국무원이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목표와 주요 임무 등을 제시한 최초의 문건으로, 2020년 서비스무역액 1조 달러 달성, 서비스업 개방 확대, 서비스무역 고도화 등의 목표 제시
 - 2016년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에 관한 문건을 발표하여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으로 10개 성시(省市)와 5개 국가급 신구를 선정¹⁾
 - 2017년에 발표한 「서비스무역 발전 13·5 계획」에서는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주요 임무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세 지역을 서비스무역 핵심구로 지정하고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12개 중점 육성분야를 제시²⁾
-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중시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정책이 대표적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2017년 발표된 7차 개정안에서는 서비스업을 첨단제조업과 함께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점분야로 인식하고 해당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
 - 2013년 상하이를 필두로 시작되었던 자유무역시험구는 2014년 광둥, 푸젠, 텐진에 이어 2016년 7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 지정되면서 현재 11개 시험구로 확대되었으며,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정 발표되면서 점차 개방도를 높여 가고 있음.

3)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육성정책

- 중국 내 서비스수입 시장의 규모, 해외 서비스업에 대한 중국 내 수요, 중국 내 우리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우리 정부의 서비스 육성 및 지원 의지 등을 고려하여 대중국 서비스업 진출 확대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을 선정

1) 10개 성시에는 텐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항저우, 우한, 광저우, 청두, 쑤저우, 웨이하이가 포함되었으며, 5개 국가급 신구에는 하얼빈신구, 난징 장베이신구, 충칭 량장신구, 구이양 구아안신구, 시안 시셴신구가 포함됨.

2) 12개 중점 육성분야는 ① 물류·운송 서비스 ② 여행서비스 ③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④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서비스 ⑤ 에너지 서비스 ⑥ 금융서비스 ⑦ 정보통신 서비스 ⑧ 기술서비스 ⑨ 지적재산권 서비스 ⑩ 비즈니스 서비스 ⑪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⑫ 국제 서비스아웃소싱임.

- 의료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 비중은 0.1%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이 점차 확대
 - 한국의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이거나 향후 의료비용, 내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분야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홍콩 CEPA 양허안을 참고한 시장 접근전략 수립이 필요
- 문화콘텐츠의 경우 시장수요는 방대하나 자국의 콘텐츠 제작능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큰 것이 특징
 - 한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 등 성장률이 높은 분야를 우선 진출 가능분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이나 드라마 등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매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교역 확대 추진 필요
 - 다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중·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로 관리하는 등 해외 문화콘텐츠의 시장진입에 대해 많은 제도적 장벽이 존재
- 중국의 물류 분야 서비스무역은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 전체 서비스무역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외자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영역
 - 현재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정부간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므로 이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

4)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 지역별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규모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비교한 결과 광둥, 상하이, 베이징, 산둥이 중국 내 서비스무역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선정
 - 이들 지역은 중·홍콩 CEPA 시범지역(광둥), 서비스업 개방 선도지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및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통한 서비스업 개방 촉진(상하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 촉진 및 한·중 FTA 시범사업 추진(산둥) 등 서비스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시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
- 광둥성은 중·홍콩 CEPA를 활용한 서비스업 개방의 실험지역으로 한국에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지역 중 하나
 - 인접한 홍콩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제조업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활발히 추진

-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 경제협력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금융, 문화, 공업 R&D 및 디자인, 전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 추진

●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대규모 서비스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 최근 문화, 정보기술, 관광 등과 같이 베이징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가 부여한 전략적 역할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
- 베이징은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이 특정 구역을 서비스업 개방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식이 아닌 시 전체를 서비스 개방지역으로 지정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한 개방정책을 추진
-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이 반영되어 문화서비스 분야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의지에 힘입어 중국 최초로 시청각제품 제작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개방도가 높은 것이 특징

● 중국 최대의 서비스무역 시장이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 소재지인 상하이 세계 최대물동량을 소화할 만큼 물류·운송업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기업 본사가 집적해 있는 금융중심지로서 해당 분야의 우수기업 지원과 선진 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

- 금융, 해운, 비즈니스, 문화, 정보기술, 전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의료관광, 온라인교육, 전자상거래, 원격 중의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중점 육성
- 서비스무역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서비스기업 유치에 위한 '상업적 주재' 모델 발전을 추진 중

● 산둥성은 중국 3대 제조업 기지로 상품무역이 발달한 반면,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지역

-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강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관광, 건설, 물류·운송과 같은 전통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발전 등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챕터에서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간 협력을 통해 양자간 서비스 개방협력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

3. 정책 제언

1)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① 미래 중국 서비스 내수시장 수요 및 정책수요 발굴을 통한 선제적 진출 추진

- [의료] 중국은 노인질환 및 장기요양, 재활,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치과 등의 분야를 자국 의료서비스 취약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진출확대 추진 필요
 - 급속한 고령화와 한자녀 정책의 폐지로 중국정부가 여성, 아동, 노인 관련 건강서비스를 육성하고자 하므로 노인 재활 및 요양, 산부인과, 소아과 분야에서 수요 확대
 - 의료관광 육성과 의료 디지털화에 노력 중이므로 향후 노인, 산모 대상의 간호서비스 및 의료미용, 고급건강검진 서비스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고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갖춘 의료서비스기관의 진출 유리
 - [문화콘텐츠] 소비확대와 더불어 중국 국내 산업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관련 서비스 부문의 진출 및 협력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원 등 중국 전체 문화콘텐츠 시장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분야에서 서비스수출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
 - [물류] 중국이 핵심 정책과제인 물류현대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정부간 협력을 통한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 확대와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플랫폼 공동 구축 분야에서 협력방안 강구 필요
 - 현재 중국의 물류산업 현대화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국내 약 20%의 기업만이 물류 현대화 및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 및 위험품목 운송, 전자상거래 등에서 대외 협력수요가 큰 상황
 -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겸비한 한국업체들은 현지 물류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갖춘 로컬기업과 협력하여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서부지역의 경우 시장 성장속도에 비해 현대화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협력 가능성이 큼.
- ② 중국시장 진출이 활발하고 인지도가 높은 분야의 경우 대중 수출경쟁력과 시장수요가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진출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
- [의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중 의료미용, 내과통합 건강검진센터, 정형외과 분야가 수출경쟁력이 높으며, 특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환자의 약 40%가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이용했을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의료미용 서비스 분야에서 진출확대 기요

- [문화콘텐츠] 최근 중국업체의 게임 개발수준이 향상되고 게임 시장의 판도가 온라인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한국의 온라인 게임은 전체 대중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수출 분야이므로 경쟁우위 유지와 수출확대 추진 필요
- ③ 외국인투자 기업의 서비스업 진입에 대한 규제 점검
- [의료] 외국인투자자에게 지분제한을 두고 까다로운 인허가 요건을 요구하는 등 여러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단독투자 진출보다는 신뢰할 만한 중국 측 파트너를 발굴하여 합자형태로 진출함으로써 복잡한 인허가에 능동적으로 대응
 - 또한 의료시설 설립 요건 및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허가증 등 중국의 관련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인허가 지연과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구비 필요
- [문화콘텐츠] 해외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도 매우 폐쇄적인 영역이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게임 등의 진입규제와 심사의 범위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
- [물류] 최근 사전 심사제도를 사후 관리감독제도로 대체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으나 여객운송, 수운, 항공, 교통관제시스템 등 분야에 대한 해외자본 진입은 여전히 엄격하게 규제

2)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 ① 베이징: 서비스업 대외개방 조치를 활용하여 대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서비스무역 확대를 위한 거점화 전략 추진
- 베이징은 과학기술과 문화 영역에서 대외개방 확대 및 업종별 특화된 서비스무역 시범기지 육성을 통해 외국의 자본과 선진기술, 관리경험을 받아들이고 서비스무역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
 - 베이징의 문화서비스 대외개방조치가 적용되는 대외문화무역기지 내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사례를 참고하여 대외문화무역기지를 중국 문화서비스 시장 진출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 베이징은 중국 내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베이징이 대외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6대 중점 영역인 과학기술, 인터넷·정보, 문화·교육, 금융, 비즈니스·관광, 건강·의료서비스와 징진지 협동발전전략을 연계한 진출 및 협력 방안 마련

- ②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와 지역특화정책을 활용하여 운송, 여행, 통신·정보, 문화, 의료 분야에서 진출확대 추진
- 상하이는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중국 내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글로벌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부문의 개방 확대 지속
 -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통해 해운, 비즈니스서비스, 사회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기준 및 외국인투자자의 금융자산관리회사 투자요건 등을 완화
- 상하이는 서비스무역 촉진을 위해 운송, 여행, 통신·정보, 건축, 전문서비스, 문화, 의료·위생서비스, 서비스무역 시범기지 육성 등 9개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지역특화정책 추진
- ③ 산둥성: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협력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
- 산둥성은 한국과 경제교류와 협력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최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서비스업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 지난, 칭다오, 옌타이, 웨이팡 등을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중점도시로 선정하고 금융, 교육, 문화, 의료, 관광, 연구개발, 물류, 자산평가 등을 집중 육성
-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이자 중국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도시 중 하나인 웨이하이는 한·중 양국의 서비스무역 및 산업협력 확대를 추진할 때 우선협력 대상지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유망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 ① 중국정부가 육성 노력 중이거나 시장수요가 큰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진출 도모
- 중국정부가 효율적인 노인 케어를 위해 각 양로서비스 기관에 노인질환과 관련된 의료시설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면서 중국 양로서비스 기관과의 의료 협력수요가 증대되었으며, 노인 재활 등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 의료기관과 중국 양로서비스 기관과의 협력확대 기대
- 물류업의 경우 대규모 자금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현대화된 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및 사업 확대가 가능하며, 특히 주요 거점지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한 현지기업을 인수·합병한 후 자사의 기술, 시스템, 솔루션 등을 접목시키는 방식 고려

② 기업의 진출전략 수립 시 시장수요와 더불어 중국 내 시장경쟁 상황 및 변화 고려

- 물류업의 경우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택배업무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내 일반택배업은 서비스 공급과잉, 가격하락, 수익률 감소 등으로 외자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며, 국제택배업도 일부 외자기업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신규 진출이 어려운 상황

- 중국 물류업의 패러다임이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첨단기술 및 시스템을 갖추어 시장에 진출해야 할 것이며, 특히 중국 내 협력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콜드체인, 의약품, 화학품, 위험물 등의 운송기술과 첨단창고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진출방안 강구

- 문화콘텐츠의 경우 중국이 자국의 서비스시장을 적극 보호하는 상황이므로 진출이 허용된 분야를 공략하되 제한된 분야는 중국 국내규제를 우회하여 진출하는 방안 검토

- 중국정부는 문화콘텐츠 무역 및 대외개방 정책상 자국기업과의 공동제작 및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중국적 문화요소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은 중국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에도 정책적으로 권장
- 중국 국내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으로 중국 로컬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진출하되 배후에서 참여하는 방안 고려

③ 한·중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높은 중·홍콩 CEPA를 활용한 진출 고려

- 홍콩은 CEPA 협정에 따라 중국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 시 일부 지역에 독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등 의료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이 다소 낮은 편이므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기관은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홍콩 투자자와 협력해 중국에 우회 진출하는 방안 모색

- 문화콘텐츠의 경우도 홍콩 CEPA를 통하는 경우 인쇄 및 출판서비스는 49% 지분비율 제한으로 진출 가능하고 광동성 내 일부 지역의 경우 70%의 비율로 법인 설립이 가능함. 또한 비디오, 사운드레코딩 배급 서비스(독자 및 합자 진출 가능), 영화관 설립 및 상영(독자 가능),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독자 가능) 등의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양허조건을 누릴 수 있음.

- 도로 여객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자 지분비율 49% 이하, 등기자본의 절반 이상이 여객운송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어야 하는 진입장벽이 있으나 중·홍콩 CEPA 협정에 따라 홍콩기업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4) 정부에 대한 시사점

① 한·중 FTA 서비스·무역 후속협상에 대비해 중·홍콩 CEPA 등 중국의 기체결 FTA를 참고한 협상전략 수립 필요

●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 가장 높은 개방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간 문화콘텐츠 협상을 참고한 협상전략 수립

- 중국정부가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특정 국가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지양하며 양자간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이나 중국 콘텐츠 수입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미국과의 투자협상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
- 미국에서 개방조건으로 제시한 내용 및 단서, 중국이 수용한 개방조치,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적용 필요
- 특히 수입콘텐츠 분야에서 '한한령'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콘텐츠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비제도적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조치를 참고하여 협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WTO 규정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

● 물류업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세부 영역마다 개방수준이 달라 개방수준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우나 중·홍콩 CEPA 양허안은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서비스에 대해 독자 혹은 합자 투자를 허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개방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해상운송서비스의 경우 선박관리 및 검사, 컨테이너 터미널 업무, 항만 화물하역업무를 개방했고, 항공운송 분야는 판매대리서비스, 주선서비스, 하역통제 및 통신연락서비스, 여객 및 수하물 서비스, 에이프런서비스의 독자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내륙수운운송서비스에 대해서도 일부 영역에서 홍콩의 합자투자를 허용

● 의료서비스의 경우 중·홍콩 CEPA, 중·대만 ECFA, 중·호주 FTA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방수준을 한국에도 허용해줄도록 적극 요구하는 전략 추진

- 중·홍콩 CEPA와 같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최소 투자금을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낮추고 한국인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진입장벽 해소에 노력
- 중국이 대만과 호주에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 일부 지역에 한해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

② 중국의 대외협력 및 해외기업 진출사례를 참고하여 한·중 협력의 성공모델 창출

● 물류업의 경우 충칭시와 싱가포르 정부 간 협력사례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한 협력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싱가포르는 일대일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충칭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급 경제협력 사업인 '중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물류, 금융, IT 등 서비스무역 위주의 협력을 확대
- 중국은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복합운송서비스와 첨단물류단지 조성 경험을 도입하고자 하고, 싱가포르는 정부간 협력사업에 다수의 자국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중국 전역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의 진출을 확대할 계획

● 의료서비스의 경우 대만의 창경병원은 중·대만 ECFA를 활용해 푸젠성에 진출한 후 외국인 의료행위 허가증 발급을 면제받거나 중국 국가의료사업 지정병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혜택을 받으며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외자 의료기관 사례

- 우리 정부도 한·중 FTA에서 지정한 한·중 산업단지나 지방경제협력 지정도시에서 푸젠성·창경병원의 협력과 같은 의료기관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한국 의료기관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 모색

③ 우리 기업이 대중 진출 시 당면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파트너 발굴을 위해 중국의 담당부처와 정부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베이징시가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허가증을 구·현 정부에서 발급하도록 하는 등 중국의 관련 인허가 정책이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관련 부처 및 각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인허가 요건과 절차 변화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고 이를 국내에서 공유함으로써 우리 의료기관이 중국 진출 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 외자 의료서비스기관의 투자 허가권은 각 지방정부의 소관사항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중국 내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들 협력지역과 의료 교육·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의료기관 관계자 간의 교류와 중국 파트너 발굴 기회 증진

● 물류업의 경우 전문인력 및 공동 물류창고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문 물류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물류업체는 물론 시장을 개척·확대하려는 화주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정부는 단순히 취업을 알선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인력을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긴급

- 중소기업의 화주들을 위한 표준화되고 시스템 관리가 가능한 물류창고의 수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물류창고 운영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④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시 중·홍콩 CEPA의 협상 시스템을 고려하여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보충협상전략 고려
- CEPA의 경우 광둥 선행시험조치, CEPA 광둥 협정, CEPA 서비스 협정 등을 살펴보면 홍콩기업에 대해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조치를 광둥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후 미·중 양자투자협정(BIT)에서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그 이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양상
 - 최근 CEPA에서는 서비스업 관리표준 및 법규 상호연계, 협상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보다 실효성이 큰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업·투자 후속협상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범위에 대한 협상 제안 필요
 - CEPA에서 광둥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한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방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적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이 가능
 - 따라서 한·중 FTA에서도 양국의 특정 지역, 즉 한·중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새만금과 옌타이·옌청·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시도하는 방안 고려 가능 **KIEP**